

# Landscape Review

VOL  
•  
023

조경정보

Contents

## 일터조경 Workplace Landscape

- 02 일터조경이 중요한 몇가지 이유 박승진
- 04 디스플레이 시티 "A" 캠퍼스 김준연
- 05 SBS Prism Tower 박윤진 · 김정윤
- 06 SK 플래닛 판교사옥 고미진
- 07 도시의 사구 SEB 은행 아외정원 최혜영
- 08 월 페트몰리움 정옥주
- 09 구글플러스 김영민
- 10 학자들을 위한 아외실험실 황윤혜
- 11 BOOKS & REPORTS 손용훈, 전진영, 이형숙
- 12 NEWS 신현돈

## 일터조경이 중요한 몇 가지 이유

# 아모레퍼시픽 뷰티사업장

글 · 자료

박승진 디자인스튜디오 loci 소장

parksj65@hotmail.com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에 문제가 없다면, 일터도 그 의미를 잃는다. 그러나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일을 놓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터라는 공간은 집과 동격이거나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다. 적어도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하루 중 9시간을, 그러니까 해가 떠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일터의 형태는 다양하다. 복잡한 도심 속 오피스 건물일 수 있고, 한적한 교외의 공장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건물에는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곳이 그들의 일터이니, 오늘날 도시 공간은 수많은 종류의 일터로 가득 채워진 셈이다.

최근에 일터에 만들어지는 조경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로환경이 무척 중요해 졌다. 이는 일에 대한 만족도 뿐 아니라 작업능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조경공간은 대부분 옥외

공간에 조성되고 바깥으로 드러난다. 잘 조성된 조경공간은 유해한 도시환경과 반대되는 지점에 서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고 좋게 관리하는 행위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 세 번째는 이러한 일들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지라도 공공의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일터에 만들어지는 조경공간은 단순히 일정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디자이너와 정교한 예산이 투입되는 창의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일정 수준의 경관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공공정원 혹은 공원과 같은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법으로 강제된 공개공지 뿐 아니라 비록 담으로 경계가 둘러쳐진 공간이라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공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마치 대학의 캠퍼스가 공원과 같이 사용되는 것처럼 말이다. 마지막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소극적으로 개방된 공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생산하고 소통하는 장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기업의 홍보를 겸하면서, 또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오산시 가장산업단지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뷰티사업장. 여러 브랜드의 화장품을 만들고 유통시키는 핵심시설이다. 조경설계 서안과 디자인스튜디오 loci가 설계하여 2012년 준공된 이곳은 대규모 제조공장과 물류시설들이 중심을 이루는 한편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물들을 사용해서 만든 '아모레퍼시픽 원료 식물원'이 있다. 이 공간은 단순한 '공장조경'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활동을 창출해 내는 기능을 담당한다. 직원들은 매일 아침 통근버스에서 내린 후 길게 뻗은 정원을 따라 각자의 일터로 이동하고, 날씨가 좋은 점심시간에는 야외에서 회사가 제공한 맛있는 도시락을 삼삼오오 즐길 수 있다.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작업장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를 감상할 수도 있다. 식물원에는 두 개의 전시공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국내외 유명작가의 작품을 직접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배온실에서는 원예취미를 공유하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정원이 중심이 된다. 밀도 높은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으며, 완만한 경사의 잔디구릉에서 뛰어 놀 수 있다.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출근하고 퇴근한다.

작년 가을에는 이곳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APMAP 2013 Osan-

아모레퍼시픽 뷰티사업장의 조경공간 ©박승진





어린이집과 놀이터 전경 ©박승진

사업장내 "2013 APMAP" 공공미술프로젝트 현장 ©박승진



REVERSCAPE™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다. 국내의 주목 받는 미술가와 건축가 14개팀이 참여했으며, 사업장의 조경공간에 설치작품들이 공간의 특성에 맞게 배치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16년까지 릴레이식으로 이어지는데 올해는 제주 오설록 서광다원, 2015년에는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2016년에는 신사옥 현장에서 펼쳐진다고 한다. 모두 일터 조경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반인들이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공원처럼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일터조경이 더 이상 그 일터에 관계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공원처럼 확산되는 현장인 셈이다.

## Transformation : Factory to Livable, Lively & Living City

# 디스플레이 시티 “A” 캠퍼스

글 · 자료

김준연 삼성에버랜드(주) 디자인그룹장

joonyon.kim@samsung.com

2011년 하반기 삼성그룹은 회사의 경영철학과 새로운 시대상이 반영된 그룹의 조정 아이덴티티Identity를 확립하고,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맞는 사업장 조경을 구현하여 임직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그룹 차원의 조정 선진화 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전국에 걸쳐 총 8개 사업장의 마스터플랜이 완료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개선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 중 삼성디스플레이의 아산사업장은 약 33,000여명의 임직원이 상주하며, 총 면적 약 380만㎡로 그 규모가 뉴욕의 센트럴파크Central Park에 준하는 초대형규모의 사업장이나, 조성 당시 외부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임직원들이 업무로부터의 피로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 및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보행자들에 대한 배려 또한 부족하여 단지 내 보행로의 규모는 단지 전체 도로의 13% 밖에 미치지 못하였다. 아산사업장 외부공간 마스터플랜의 기본방향은 이 거대한 산업시설을 쾌적하고 활기차며 친환경적인 캠퍼스와 같은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녹지율14% → 45%).

마스터플랜의 틀을 요약하면, 첫째, 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기존 저수지와 야산을 이용하여, 사업장의 거대 규모에 걸맞는 대형 수변공원을 조성, 이를 사업장의 녹지체계의 중심core open space으로 삼고, 둘째, 사업장내 유휴지나 단순 장식성 식재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단지 전반에 소통공간social open spaces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였다. 셋째, 사업장 내외부의 도로들을 보행자 도로로 전환하거나 신규 보행로를 개설하여 이러한 소통공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업장내에 조성된 녹지체계를 주변의 자연과 연결시켜 보다 광역적인 녹지의 연계와 생태계의 회복을 꾀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외부적으로는 거대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시 동반될 수 있는 개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내부적으로는 임직원간 소통과 휴식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창조적 생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데 본 사업의 의의가 있겠다.

디스플레이시티 전체 조감도 ©삼성에버랜드



주차장이 주차빌딩과 상부공원으로 재조성 ©삼성에버랜드



단지중심부의 호수공원 ©삼성에버랜드



## 빛의 물화

# SBS Prism Tower

글 · 자료

박윤진, 김정윤 오피스박킴 소장

parkkim@parkkim.net



실내외를 관통하는 관목부케 ©오피스박킴

SBS의 새로운 사옥인 프리즘타워 공간설계에서, '빛'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알루미늄 데크Aluminum deck, 그린 미디어 월Green Media Wall, 10층의 중정 모두 여러 종류 다른 미디어엄Medium을 통해 빛이 물화物化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상부의 공간은 북향의 좁은 공간으로서 메인로비Main Lobby와 기존 광장 사이에 놓여 있는데, 선박제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 제작한 알루미늄 프로파일Profile 들로 이루어진 데크들은 빛을 반사하여 북향의 공간과 실내공간까지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배수를 원활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건물 쪽으로 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준다.

12개의 '관목부케Shrub Bouquets' 들은 단순하고 좁은 공간에서 좀더 역동적인 동선흐름과 아늑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며, 특히, 이중 세계의 부케에 심겨진 조릿대는 시각적으로 마치 건물을 관통하는듯 보여 건물 내외부를 모두 넓게 보이게 하는 아웃사이드-인Outside-In 전략을 보여준다.

가장자리에 설치한 스테인리스 스틸의 에지들은 관목의 지지분한 하부를 가려주면서 겨울철에도 정리된 외부공간을 유지하게 한다.

그린 미디어월은 긴 플랜터에 먼저 송악 화분들을 설치하고 다시 그 겉면을 일곱 개의 다른 각도를 가지는 슈퍼미러Super mirror 클라딩Cladding을 부착, 동절기에 잎이 시든 후에도 시각적으로 양호하게 보이도록 흥미로운 반사효과를 만들어내었다.

10층의 중정Interior Forest에서는 근무중에 잠시 나와 마치 숲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빛이 거의 들지 않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각 스테인리스 스틸 각관을 잘라 마운딩Mounding 위에 올려놓고 흑색경화황토 배합물을 부은 후 갈아내는 과정을 통해 약간의 빛에도 반짝이는 바닥포장을 만들었다. 서로 다른 재료들의 여러 조합을 통하여 물화된 빛을 통해 만들어진 경관은 미디어회사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되고 있다.

10층에 위치한 인테리어 포레스트forest ©오피스박킴



북향의 공간이 알루미늄 데크의 반사를 통해 밝아지는 포디엄Podium ©오피스박킴



# SK 플래닛 판교사옥

글 · 자료  
고미진 SK임업 환경디자인실 실장  
mj.koh@skforest.co.kr



야외카페 전경 ©SK임업

사옥은 주 이용자인 직원들에게 일하기 좋은 장소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필요 외에도,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의 가치를 외부에 전달하는데 좋은 매개체 역할을 한다. SK임업 환경디자인팀이 설계한 SK planet 신사옥판교테크노밸리 내 또한 조경공간 전반에 걸쳐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계, 시공되었다.

## 소통하는 공간

사옥이 위치한 곳은 서울에서 판교로 들어서는 길목으로, 지역 하천인 금토천과 면해있어 자연과의 연계가 비교적 수월하다. 1층 옥외공간은 늦봄 흰 꽃이 아름다운 이팝나무 가로수길을 거닐고, 날씨 맑은 가을날 단풍 짙은 참나무 숲<sup>1</sup>으로 친변산책이 가능하다. 고객접점실 맞은편 옥외공간에는 다채로운 관목과 초화류가 띠를 이루는 선형의 휴게정원<sup>2</sup>이 있다. 그래서 사옥은 사람이 그 공간에 잠시 머무는 것 만으로도 변화하는 계절을 느낄 수 있고, 높고 커다란 유리건물로 둘러싸인 차가운 도시에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건물이 놓여지는 공간인 플라자는 크고 작은 원형이 자유롭게 떠다니는 듯한 포장패턴이 바탕이 되고, 건물 전면으로 느티나무 대형목이 원형의 플랜터와 함께 자유로운 패턴 위를 유영하듯 심겨졌다<sup>3</sup>. 건물 내 보육시설과 이어진 작은 옥외공간에는 물결모양의 벤치를 두어 아이들의 작은 놀이체험이 가능하다. 이렇듯 1층의 조경공간은 권위적인 사옥의 모습이 아닌, 전체적으로 재미있고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기에 자연스러운 공간, 이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대표적 회사인 SK 플래닛의 기업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옥외공간 디자인 전략이다.

## 새로운 office culture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요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무공간은 컴퓨터가 놓여진 책상을 넘어서 어디서든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장소를 필요로 하였다. 건물의 옥상 또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모임과 여과활동이 가능하도록 마련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각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계단실과 기계실을 가리는 벽면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했다. 소재에 대한 다양한 실험 후, 실내 인테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재인 고벽돌과 목재판넬을 벽면 전체에 도입하여, 유럽의 거리풍경과 같은 분위기를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단순한 휴게시설보

다는 재미있는 테마를 조금씩 부여하면서, 옥상공간이 직장인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였다. 계절마다 다양한 색의 초화류를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는 사계원<sup>4</sup>, 옥외에 마련된 바<sup>bar</sup>와 같이 저녁시간 하이체어<sup>high chair</sup>에 앉아 금토천을 바라보며 와인/티 모임을 할 수 있는 야외카페<sup>2</sup>, 사내 미니콘서트나 영화관람, 바비큐 파티 및 칵테일 모임이 가능한 문화예술원<sup>3</sup>, 캐주얼한 팀미팅이나 요가를 포함한 소규모 여가모임이 가능한 협의정원<sup>4</sup>이 그것이다. 고급스런 정원용 테이블 세트와 식재포트, 천베드 등 모든 옥외가구는 세심하게 선정되어 배치되었으며, 실내인테리어에서 필요한 가구를 짜듯, 옥외바 테이블/의자 세트, 이동식 목재벤치는 각 공간의 분위기에 맞게 따로 설계, 제작되었다.

옥상정원 평면 ©SK임업



사계원 ©SK임업



# 도시의 사구, SEB 은행 야외 정원

글 · 자료  
최혜영 west8 팀장  
choi.hyeyoung@gmail.com



모래 언덕과 같은 유연함이 살아있는 콘크리트 판 ©cSLA: Jens Lindhe, Torben Petersen

The City Dune은 SEB 은행의 코펜하겐 본사 야외 정원이다. 일반적으로 사육을 디자인함에 있어 열린 공간을 지향하기 보다는 내부로 집중하여 직원들의 편의 증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SEB는 두 개의 본사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외부 공간(지하주차장의 상부 : 총 7,300m<sup>2</sup>)을 도시로 오픈 함으로써 본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낙후된 코펜하겐 항구 연안의 재생에 일조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기반을 둔 디자인 회사 SLA의 설계 작품으로 2011년 완공되었다. SLA는 스웨덴 Malmö City에 만들어진 Anchor 공원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SLA가 The City Dune을 디자인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도시로의 연결성 확충 및 기후 적응을 통한 지속가능성이다. 전체적으로 딱딱한 콘크리트 판을 모래 언덕의 중첩이 연상되게끔 두 개의 건물 사이로 흘러 내려오도록 섬세한 터치로 켜켜이 쌓았고 미세한 경사로로 이용해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이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주변지역보다 7미터나 높은 부지를 주변의 주요 문화 시설 및 코펜하겐 항구와 한층 가까워지게 하였다. 콘크리트 판은 또한 표면의 태양광을 반사하며 더워진 공기를 식히는 등 미기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판 사이 갈라진 틈에 식재된 무성한 스칸디나비아의 수목 및 초화류, 그리고 그 사이에 설치된 분사기(빗물 스프레이) 또한 미기후 조절에 일조하며 콘크리트 판을 따라 흐른 우수는 두 개의 큰 빗물탱크로 모여 다시 관개용수로 사용된다. 이렇게 부지를 아우르는 콘크리트 바닥은 배수 및 집수, 식재 공간 제공, 미기후 조절 등의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SEB의 고객 및 직원 그리고 코펜하겐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접근로 및 레크리에이션(Recreation)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로 열려있는 정원 ©cSLA: Jens Lindhe, Torben Petersen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도 이용되는 보행 경사로  
©cSLA: Jens Lindhe, Torben Petersen

# 셸 페트롤리움 (former) Shell Petroleum

글 · 자료  
정욱주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wookju@snu.ac.kr



입구광장과 아쿠아틱정원 연결부 ©정욱주

캐서린 구스타프슨 Katherine Gustafson 을 이는 조경가라면 프랑스 튀에유 말에종 Rueil-Malmaison 에 위치한 셸 페트롤리움이 그녀의 시그니처 Signature 와 같은 프로젝트임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1998년 책을 통해서 소개된 이 공간은 세련되고 독창적인 이미지로 가득하였다. 옷감을 다룬 듯한 잔디구릉 위 사진속의 그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일터 조경이라는 주제 이전부터 꼭 한번 찾아가보고 싶은 장소였는데, 2011년도에 지인들과 갔었던 정원답사 일정 속에서 마주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기업의 근무환경에 대한 진보적인 시도를 접하곤 한다. 포드시대에 고안되어 생산성의 극대화를 이루었던 컨베이어벨트의 신화와 비교해보면 직원들의 잠재적인 창의성이 기업의 가치창출로 이어지도록 고려된 구글이나 애플의 근무환경은 완전한 패러다임 Paradigm 의 전환을 이룬 듯 보인다. 셸의 공간은 이와 비교하자면 근무환경의 최적화보다는 기업이미지를 공간적으로 세련되게 표출한 사례로 판단된다. 설계가의 설명대로라면 공간설계는 기업의 이념, 화석연료 그리고 세느강에 대한 상징으로 가득하다. 기업의 가치를 품어 있는 공간언어로 전환했을 때 근무자와 방문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기대하였을 것이다.

실제 방문하였을 때 셸의 본사는 네덜란드로 옮긴 상태였다. 셸과 관련된 개념과 상징이 구현된 조경공간은 훌륭한 외피(?)로서 현 사용자들에게 활용되

고 있었다. 방문자로서 접근가능한 공간은 입구광장과 아쿠아틱 Aquatic 정원으로 제한되었으나 일반적인 기업본사의 외부공간과 비교하면 고급정원의 퀄리티 Quality 가 흐르는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원들 역시 매우 만족스러워할 근무환경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마치 멋진 패션을 몸에 걸쳤을 때의 만족과 같은... 이것이 주인이 바뀌어도 비용과 난이도를 요구하는 관리가 꾸준한 이유가 아닐까 싶었다.

입구광장의 잔디구릉 ©정욱주

아쿠아틱 정원 ©정욱주





# 구글플렉스 Googleplex

글 · 자료  
김영민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ymkim@uos.ac.kr



구글플렉스 평면도 ©swagroup.com

산호세(San Jose) 인근에 위치한 구글플렉스(Googleplex)는 원래 실리콘 그래픽스(SGI) 캠퍼스였다. 이전까지의 업무 공간과는 달리 이 프로젝트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공모전부터 26에이커의 연구시설과 5에이커의 공원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며 설계사인 SWA는 두 가지 기본적인 기본 방향을 정했다. 첫째는 공원과 업무 공간을 하나의 캠퍼스로 다룰 것, 그리고 1,700여 대에 달하는 주차 공간으로 모두 지하화 할 것. 이로서 구글플렉스는 야외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용 공간을 확보하여 공원과 같은 업무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전 소유주인 실리콘 그래픽스는 이 업무 공간에 “엄청난 재미(serious fun)”라는 회사의 철학을 반영하기를 원했으며 2004년부터 캠퍼스의 주인이 된 구글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공간을 재구성한다. 실내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조

경 공간에서도 유희와 업무는 공존한다. 이와 같은 개념은 여가를 표현하는 곡선과 효율을 강조하는 직선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노란 벽돌로 포장된 길이 캠퍼스 내에 존재하는 세 개의 정원을 묶어준다. 사색적인 성격의 동쪽 정원의 원형 둔덕은 원경에서 보이는 칼라베로스 언덕(Calaveros Hills)을 반영하며, 중앙 정원은 구글 직원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조경 공간은 구조물 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녹음을 식재하기가 어려워 구글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색상의 우산들로 그늘을 제공한다. 서쪽정원은 레크레이션(Recreation) 공간이다. 느릅나무가 심겨진 배구장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게이트볼 구장이 세련된 작은 사격형의 정원 안에 위치한다. 각 정원에는 특별한 기계장치 없이 지하의 주차장을 환기시킬 수 있는 개구부를 디자인의 일부로 반영하였다. 유희가 일과 분리되지 않는 구글플렉스의 조경은 구글의 철학을 반영하며 새로운 업무 공간을 만들어낸다.

마운드정원 ©swagroup.com



# 학자들을 위한 야외 실험실 싱가폴 국립대학캠퍼스

글·자료  
황윤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조경학과 조교수  
yhwang111@gmail.com



특정 식물의 발아율 테스트 (NUS nursery) ©황윤혜

일터조경의 일차적 목적이 산업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완화하거나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보다 적극적 의미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5km<sup>2</sup> 면적의 싱가포르 국립대학 캠퍼스는 학생들을 위한 학업공간과 서비스 시설들뿐 아니라, 교수 및 연구원들을 위한 각종 실험실과 실습도구들이 가득한 곳이며 외부환경도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수문엔지니어링 관련 연구를 위한 물탱크와 저수지, 생물학과에서 운영중인 자생 묘목을 위한 양묘장, 태양열 에너지의 효율성을 실험중인 건물외벽을 비롯하여 날씨 및 지리정보를 위한 장치들도 지붕 곳곳에 보인다. 캠퍼스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같은 다양한 요구를 일일이 수용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겠으나, 이미 자리 잡은 '연구중심대학'이라는 타이틀 때문이라도 캠퍼스의 실험실화가 지지, 지속될 것임이 자명하다. 본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연구 프로젝트 "Spontaneous vegetation as a landscape material"를 위하여 세 구역의 캠퍼스녹지에 잔

디 깎기 금지 표지판을 세운지 어언 3년, 생물다양성, 토양침식방지, 관리비절감, 경관개선 등 여러 가지 측면의 긍정적 변화에 힘입어 이제는 20여 곳으로 측정구역을 확장 중이다. 연구과정 중 일부는 조경과 학생들을 위한 실습과제 대상지로서 쓰였고, 일부는 특정 식물의 적응력을 테스트하는 용도로도 활용되었으며, 디자이너, 조경관리자들의 실험 및 답사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연구 "Green roof as local habitat"를 위한 실험실로서 서로 다른 크기와 위치의 건물옥상 두 곳이 선정되어 최소한의 구조와 관리하에 생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 지침을 개발하는데 활용 중이다. 사람들과 함께 진화 발전된 캠퍼스조경은 아마 35여 년 전 시공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학자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크고 작은 실험실들이 비어있던 외부공간을 채우고 켜켜이 쌓여 연구의 깊이만큼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생물다양성 실험을 위한 옥상조경  
(NUS School of Environment and Design 건물 옥상)  
©황윤혜



잔디밭의 자생적 성장을 위한 연구공간  
(NUS 캠퍼스 그라운드) ©황윤혜



## Design for Ecological Democracy

By Randolph T. Hester

지난 50년간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규모 도시개발은 자연생태계를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인간공동체 community 사회 구조를 허물어뜨림으로써 인간소의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왔다. 이 책의 작가이자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의 명예 교수인 랜돌프 헤스터 Randolph Hester는 도시개발로 인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생태 민주주의를 위한 설계 Design for Ecological Democracy'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모든 생물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학 Ecology 이론에 기반하여 민주주의 Democracy를 실현한다는 '생태 민주주의 Ecological Democracy'의 개념을 바탕으로 작가는 인간공동체 사회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인간과 환경이 유기적으로 상호관계를 가지는 도시의 형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책에서 작가는 도시가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능하는 생태 민주주의 Ecological Democracy를 향한 도시 및 조경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Enabling form, 두 번째는 기후, 식생, 건물 재료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낭비 및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하는 Resilient form,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Impelling form이다. 커뮤니티 디자인과 관련한 랜돌프 헤스터 Randolph Hester의 작품들 중 대표 서적으로 꼽히는 생태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설계 Design for Ecological Democracy는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조경 설계가, 도시 계획가, 환경운동가, 지역사회 운동가 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생태 민주주의를 위한 설계의 의의와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공간 및 설계 사례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정리 \_ 전진형



## Going Public: Public Architecture, Urbanism and Interventions

Public Architecture, Urbanism and Interventions

By R. Klanten(Editor), S. Ehrmann(Editor), S. Borges(Editor), L. Feireiss(Ed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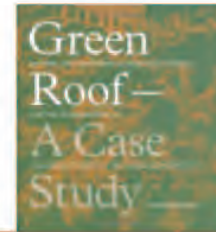
현대사회의 공공공간은 다양화되고 조성방향의 기준 또한 일률적이지 않다. 또한 공공공간은 도시재생, 지역활성화 등에 활용되는 교류의 장으로 그 기능이 재조명되고 있다.

본 서적은 현대사회 건축, 도시, 조경분야에 있어서 전통적인 공간계획방법, 설계방법에 대비되는 다소 혁신적인 해결방안 Innovative solutions을 제시한 세계적 사례를 모았다. 본 서적에서는 공공공간에 관한 새로운 수요, 공공성 해석에 대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작품을 볼 수 있다.

각 작품의 조성목적은 레저, 문화활동의 장소 제공에서부터 사회적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기회 제공까지 다양하다. 또한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벤치, 자전거보관소, 버스 정류장 등의 공공디자인에서부터, 도시근교의 전망대, 은신처, 트레일 trail, 조류관찰대 등까지 경관을 보다 더 향유하고 즐기기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 시도를 다루고 있다. 많은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점도 이 서적의 장점이다.

과거의 공공공간이 특정되어 있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공간이 커뮤니티 활동의 장으로 가능성을 지닌다. 또한 의도되지 않은 장소에서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이 행해지는 경우도 많다. Going Public은 현대사회의 공공공간, 커뮤니티 Community 공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고 있으며, 건축가뿐 아니라 조경 설계가에게도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고서이다.

정리 \_ 손용호



## Green Roof: A Case Study: Michael Van Valkenburgh Associates' Design For the Headquarters of the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2007)

By Christian Werthmann

'그린루프'는 조경가 마이클 반 발켄버그가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조경가협회 (ASLA) 본부건물의 옥상, 약 300 제곱미터 면적공간을 옥상녹화 공간으로 설계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지속가능한 환경디자인에서 조경가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ASLA의 소케이스 프로젝트이다. 이 책의 경우 옥상녹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디자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직접 시공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 실무 전문가에게 많은 해법과 과제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될 보석 같은 책이다. 또한 ASLA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하여 옥상녹화의 우수저장, 기온조절, 수질정화, 에너지 절약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자료와 투어 등의 방법으로 옥상녹화의 가능성뿐 아니라 심미성, 실용성을 홍보하고 있다. 책 후반부에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조경학과 조교수이자 피터워커 Peter walker 사무실에서 실무경력 가진 저자 크리스찬 워스만 Christian Werthmann 과의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으며, 칼라사진, 설계도면 및 각종 디테일, 그래픽 및 다이어그램 등을 통하여 이 옥상녹화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옥상녹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디자인적 영감뿐 아니라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정리 \_ 이형숙

# NEWS

정리  
**신현돈 서안알앤디 디자인(주) 대표이사**  
 shinhyeondon@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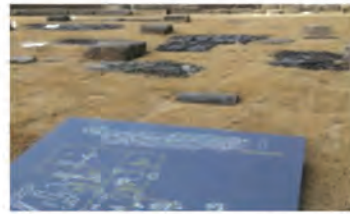
**팝아트(Pop Art)적 도심 템포러리(Temporary) 조경**  
 지난 3월 3일 제11회 조경의 날을 새로 지정하여 서울 광장에 '일시적인 조경(Temporary Landscape)'의 일환으로 시민참여정원을 조성하였다. 시민들에게 레드카펫을 걸 수 있도록 하여 축제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의자'를 설치해 도심 속 일터 주변에 새로운 조경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조경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였다. 또한 역세의 정원, 갈대의 정원 등을 조성하여 도심의 일상적인 경관으로부터 탈피한 오픈스페이스 구현을 통해 서울의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덕수궁과 원구단 앞에 간직한 옛 한양 길의 기억을 모티브로 "시민에게 레드카펫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도심 속 근무자들을 위한 일터조경을 창출하였다. 이는 과거 남산골에서 황토현을 거쳐 광화문 육조거리에 이르는 길, 덕수궁 서소문에서 광통교를 거쳐 한양의 북촌으로 이르는 길을 레드카펫과 흰색 길로 연출하여 "과거 한양 길의 기억"을 상징화시켰다. 대중에게 친근하게 접근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하는 3.3신기정원은 시민들에게 생경감과 신선함을 선사하며 새봄에 서울광장에 팝아트적 조경을 보여주었다.

**아마존, 유리돔 신사옥 건설. 생태건축 지향...  
 공원에 서서 일하는 느낌**  
 최대 인터넷 소매업체 아마존이 정보·기술(IT)업계의 신사옥 짓기 행렬에 합류했다.

아마존이 시애틀에 3개의 유리돔 형태의 신사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건축회사 NBBJ가 디자인을 맡은 아마존의 신사옥은 24~27m 높이의 거대온실로 약 30만㎡ 부지에 세워질 계획이다. 아마존 사옥을 설계한 건축가는 "이번 신사옥은 생태건축을 지향해 자연적이고 공원 같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사무실과 회의실 등에 관목과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돔 외부에는 놀이터와 애견공원 같은 열린 공간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돔 안에는 20~22도 사이의 사무실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물을 위해 밤에는 건물의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마존 신사옥 ©http://nbbj.com



윤중가 온돌복원 ©서안알앤디

**그랑서울, 옛 한양의 타임머신**

그랑서울은 양반가의 온돌, 장초석을 복원한 시간의 주춧돌, 윤중가의 시전행랑 등을 복원하여 옛 한양 시간의 기억을 되살렸다. GS건설은 2013년 12월 27일을 끝으로 지난 88년부터 타전으로 살아왔던 서울역 역전 타워를 떠나 종로 청진동 119-1번지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24층의 쌍둥이 빌딩 'GS그랑서울' 빌딩으로 사옥을 이전했다고 2014년 1월 8일 밝혔다. 대지면적만 1만4225㎡(약 4303평)에, 빌딩 연면적은 17만5536㎡(5만3099평)에 달하는 프라이م(Prime)급 빌딩이다. GS그랑 서울의 전면에는 과거 피맛골을 재현한 컨셉으로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고 그 지하층으로 상점가가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건물 앞에는 윤중가의 옛 유구(옛 건물의 흔적)를 복원해 놓았다.

건물 곳곳에는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코어(Core)들이 위치해 있으며 빌딩 안 곳곳에 조성된 조경공간은 모던하면서도 전통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도록 설계되었다. 높은 층고의 건물 중심은 여느 오피스 건물에서

는 느낄 수 없는 웅장한 분위기가 느껴지며, 상당한 면적을 공공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팔로 알토', 낡은 공장 재생 '친환경 일터'로**  
 애써 큰 돈 들여 새 건물을 짓지 않아도, 도시의 낡은 공장을 잘 재생하고 주변을 잘 정비하면 '친환경 일터'의 아이콘으로 부활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 '22@혁신지구' 내 '팔로 알토(Palo Alto)'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겉으로 보면 낡은 공장인데 정면으로 들어서니 잘 가꾸어진 정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공장 벽은 담쟁이로 뒤덮였고, 선인장과 아름드리 나무에 푸른 숲, 색색깔 꽃들이 가득하다. 섬유공장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굴뚝과 프레스가 곳곳에 남아 있다. 자꾸 새 것만 지어대는 부산과는 대조적이다. 바르셀로나 시는 섬유공장 터에 정책적으로 지사7만 기업을 입주시켜 친환경 일터로 바꾸도록 유도했다. 저렴한 임대료에도 20년마다 재계약 하는 조건으로 건축, 사진, 조경, 영상 등 15개 디자인 기업이 입주했다.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 200여 개가 만들어졌다. 공장 안의 카페테리아는 주민과 직원들이 모이는 '직은 공동체'이다. 작은 디자인 클러스터(Cluster)가 된 것이다. 기업들은 새로운 일터를 꾸미되 공장의 흔적을 최대한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예컨대 '모래와 디자인'은 트러스(Truss) 구조인 공장 지붕을 그대로 살려 고풍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인 작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팔로 알토'의 대표기업인 세계적인 디자이너 허비에르 마리스칼의 작업공간 '스튜디오 마리스칼'은 기존 설비를 재활용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스코트 '코비'와 매니케이션 '치코와 리타'를 만든 이 회사는 낡은 주방, 공장설비, 주변환경을 그대로 살린 생태적인 작업공간을 연출해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서울광장 템포러리 조경 ©서안알앤디



팔로 알토 공장조경 ©http://www.paloaltobcn.org



**편집자 레터**

작년 인천의 산업단지 한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등산용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이 회사에는 건축물의 입구에서 옥상까지 여러 정원을 만날 수 있었다.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회사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삭막한 산업단지의 거리는 방지되어 있었지만, 이 회사의 정원은 보석과 같은 존재였다. 이번 호의 주제는 '일터 조경'이다. 삶터, 놀이터와 함께 일터는 우리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일터에 대한 관심이 다른 영역에 비해 덜 했다. 최근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으로 좋은 외부공간을 가진 일터가 늘어나고 있다. 일터는 누구나에게 열린 공간이 아니라 비교적 덜 알려져 있다. 이번호에서는 다양한 사례의 일터조경을 소개한다. 앞으로 '공원과 같은 일터', '정원과 같은 일터'가 늘어나기를 희망한다.

조경정보지 편집위원장 조경진

**(사)한국조경학회 발간정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07호  
 Tel 02-565-2055 Fax 02-565-2056  
 e-mail kila96@chol.com  
 Homepage www.kila.or.kr

**발행 및 편집위원 정보**

발행일 | 2014년 4월 30일  
 발행처 | (사)한국조경학회(김한배 회장, 서울시립대)  
 편집위원장 | 조경진(서울대 환경대학원)  
 책임편집위원 | 전은정(조경포레(주)), 전재현(상상에버랜드(주))  
 편집위원 | 김병채(재음조경기술사사무소), 김영민(서울시립대), 박희성(서울학연구소), 손용훈(서울대 환경대학원), 신현돈(서안알앤디디자인(주)), 윤상준(조경설계 이화원 정문문화연구소), 이상민(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형숙(가천대, 전진행(고려대) 간사 | 유은자(사)한국조경학회)

